

이수련 방월	059	전태영 학우	103
「열여섯 첫사랑」	060	「논밭」	104
「영혼이 떠난 목재는 송장」	061	「흔」	105
「삶의 포말」	062	조영광 학우	107
「요정」	063	「머러운 진심」	108
최지민 방월	071	「사라져도 잊지 않는 마음으로」	109
「고양이」	072	조경인 학우	111
「집에 가자」	073	「괘종이의 비명」	112
「나무라는 나무가 되어」	074		
「좋아해요」	075		
3부 나란히 찍힌 별자국	077	닫는 글	113
백기부 학우	079	사랑방 별자취	117
「소나기」	080		
「공원에서」	082		
정지선 학우	085		
「시의 향연」	086		
우경훈 학우	089		
「Viva la vida」	090		
「넌 그저 과거의 온기를 얻기 위해 미래를 걷는 유랑객이다」	092		
「부조리」	095		